

문화유산의 해 프롤로그

전통문화 뿌리는 튼튼한데...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사업이 전국민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테마가 있는 불교문화재 보기' '문화재 훼손현장 고발' 등을 연재할 계획이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보존하는 연중 기획에 앞서 프롤로그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장경호 (경기도 박물관장)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OECD에 가입되는 등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지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문화 생활체계 면으로는 낙후된 면을 보이고 있음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면은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 정신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지적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의 와카현(佐賀縣)의 요시노 가리 유적의 경우를 보면, 1986년 이곳에 공장을 세우려 발굴조사 중에 주위에 도랑과 목책으로 둘러진 선사시대(彌生時代)의 취락과 옹관묘 군 등이 노출되어 이곳을 발굴한 후 몇 모습대로 추정 복원하고 정비하여 관람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유적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년 대구 시지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무수한 신라 고분과 또 취락 유적들이 출토되었지만, 조사도중 발굴단과 사업자에게 충돌로 사업자측에서 한밤에 불도저로 취락 유적을 밀어 유적을 파괴하였다.

이 유적은 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요시노 가리와 같이 재현을 할 수 있는 유적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국토 건설 사업이나 철도, 도로공사, 공장건설 사업 등으로 발굴조사를 거쳤던 안거처인 상관이야 파손된 유적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여 우리들의 가치관이 너무 물질과 경제 우선으로 한시적인 이익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와 같은 역사도시 유적 환경의 파괴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인 아름다운 강산이 개발과 편의의 목적으로 점차 파괴 오염되고 있음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학계나 당국의 노력으로 어쩌다 유적을 보존하려더라도 그 유적이 영위하였던 역사환경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고작 유적만을 보존하는 형편이다.

역사를 살펴봐도 중수지리사상의 경우 중국의 도교적 요소를 받아들여 일으켰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연에 대한 경의심과 수려한 강산에 걸맞게 되어 중

국보다도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더욱 발달되었고 근래에까지 양택이나 유택을 잡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 유적을 볼 때 그 환경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양문화가 우리의 빈곤한 여지를 뺏아들이고 있어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는 얼마전 70년대에 잘 살아보자는 정책하에 새마을 운동을 펴서 많은 성과를 얻어 경제는 일으켰지만, 초가를 없애고 양철지붕을 있는 등 전통적인 역사 환경을 많이 훼손시켰음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또 이렇게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선진국에 여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본 주택들이 뽀족지붕을 하여 다락방을 둔 것을 보고 와서 이것을 흉내내어서 소위 불란서집이란 것이 한창 유행하다가 사라진 것도 잘 알 것이다. 북 구라파에서 지붕이 뽀족한 것은 기상 특적으로 눈이 오니까 이것을 속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상 몇가지 중요한 목적을 들었는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러한 목적을 조급이라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할 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대의 취락 집터는 지금의 아파트보다 더욱 재산적 가치가 큰 상속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유산은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라 훗날 후손들이 대대로

소유할 재산이다. 우리는 지금 경주, 부여, 공주, 김해 등 고도(古都)의 발전상을 보고 적지않은 우려와 가슴아픔을 느끼게 된다. 경주는 고층 아파트로 인하여 역사환경이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고 부여와 공주, 그리고 김해는 이미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도시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제대로 보존된 곳은 없다. 서울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얼마 안 있어 경주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

하루속히 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유산의 해'에 이루어진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나 당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나 국민이 나서서 해야 한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는 백만의 회원으로 중요한 문화유적과 자연환경까지 매입을 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칠 수상의 저택을 사들여 이를 기념관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경치 좋은 해안의 상당한 면적을 사들여 현상 변경을 막고 있다. 이 중에는 유적으로 판단되는 곳이 있어 얼마전 영국정부에서 이것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단체의 저지로 중지됐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단체나 보존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해'에 보존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전과 같이 한강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못한다면 역시 일시적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간인 보호 단체로서 능력과 힘을 가지려면 국민의 전통문화 의식이 확대되고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문화학교 설립 입안이 문제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수를 위한 체계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을 위한 과정만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많은 상품에서 이러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쾌적한 강산을 되찾으려 하면 자연환경을 비롯한 역사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주 남산 병골 어귀길 옆에 있는 머리와 손이 떨어져나간 여래좌상. 문화재들 일부로 방치해 온 우리의 문화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얼마전 70년대에 잘 살아보자는 정책하에 새마을 운동을 펴서 많은 성과를 얻어 경제는 일으켰지만, 초가를 없애고 양철지붕을 있는 등 전통적인 역사 환경을 많이 훼손시켰음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또 이렇게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선진국에 여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본 주택들이 뽀족지붕을 하여 다락방을 둔 것을 보고 와서 이것을 흉내내어서 소위 불란서집이란 것이 한창 유행하다가 사라진 것도 잘 알 것이다. 북 구라파에서 지붕이 뽀족한 것은 기상 특적으로 눈이 오니까 이것을 속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상 몇가지 중요한 목적을 들었는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러한 목적을 조급이라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할 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대의 취락 집터는 지금의 아파트보다 더욱 재산적 가치가 큰 상속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유산은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라 훗날 후손들이 대대로

소유할 재산이다. 우리는 지금 경주, 부여, 공주, 김해 등 고도(古都)의 발전상을 보고 적지않은 우려와 가슴아픔을 느끼게 된다. 경주는 고층 아파트로 인하여 역사환경이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고 부여와 공주, 그리고 김해는 이미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도시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제대로 보존된 곳은 없다. 서울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얼마 안 있어 경주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

하루속히 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유산의 해'에 이루어진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나 당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나 국민이 나서서 해야 한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는 백만의 회원으로 중요한 문화유적과 자연환경까지 매입을 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칠 수상의 저택을 사들여 이를 기념관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경치 좋은 해안의 상당한 면적을 사들여 현상 변경을 막고 있다. 이 중에는 유적으로 판단되는 곳이 있어 얼마전 영국정부에서 이것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단체의 저지로 중지됐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단체나 보존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해'에 보존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전과 같이 한강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못한다면 역시 일시적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간인 보호 단체로서 능력과 힘을 가지려면 국민의 전통문화 의식이 확대되고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문화학교 설립 입안이 문제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수를 위한 체계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을 위한 과정만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많은 상품에서 이러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쾌적한 강산을 되찾으려 하면 자연환경을 비롯한 역사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아침 칼럼

새해, 새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해를 보면 누구나 가슴 속에 희망을 가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슬프고, 불행하며, 고통스러운,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인 일들이 죽음과 함께 놓여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일은 보다 즐겁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삶을 추구한다. 또 그러한 삶의 길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덜 불행하고, 때로는 행복하며, 또 때로는 완전한 행복의 길도 얻는다.

사리사욕 무명을 낮고

그러나 우리를 모두가 삶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모두들 삶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살 길은 놔두고 한사코 죽음의 길로만 나아간다.

몇해전, 걸프전쟁이 있었다. 전쟁은 끝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들, 매스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쟁을 원했으며, 찬미하였다. 전 미국이 죽음을 찬미하고, 그리고 나간 것이다. 걸프전쟁이 터지기 직전, 워싱턴 정가에서는 '프리텍스트'(pretext), 즉 구실(口實)이란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때 어느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피할 길은 얼마든지 있어 얼마전 영국정부에서 이것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단체의 저지로 중지됐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단체나 보존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해'에 보존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전과 같이 한강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못한다면 역시 일시적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간인 보호 단체로서 능력과 힘을 가지려면 국민의 전통문화 의식이 확대되고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문화학교 설립 입안이 문제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수를 위한 체계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을 위한 과정만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많은 상품에서 이러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쾌적한 강산을 되찾으려 하면 자연환경을 비롯한 역사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삶의 길로 가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과 국민들 모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기 때문이다. 전쟁과 혁명과 정치적 탄압은 인간의 욕망과 무관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다. 사람들이 욕망에 어두워 그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 불교인들은 얼마나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분하고 있는가. 정말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리사욕에서 일어나는 무명을 깨우치고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국의 현대 불교사에도 싸움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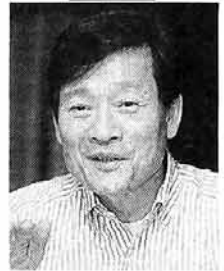
보살의 마음이 '희망'

대처승과 비구승이 싸웠다. 권승과 일반승들이 싸웠다. 전입 주지와 신임 주지가 싸웠다. 때로는 죽고 많이들 다쳤다. 그 모든 원인은 불교인들 자신이 죽음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불교인들은 흔히들 정치 권력이 불교인들간의 분쟁을 야기시켰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불교인들 자신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불교인들 자신이 아무런 사리사욕이 없었다면 왜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스스로 권력에 기대졌는가. 책임 소재를 권력자에 돌리는 것은 불교의 기본 교리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 어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든가. 얼마전에도 정치권력이 불교단체들 간의 불화를 부추긴다는 말이 있었다. 정치권력이 실제로 그랬던 것이 곧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나은 근본적인 책임은 불교인들 자신에게 있다.

사리사욕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몬다면, 삶의 길은 사리사욕을 버리는 데서부터 열릴 것이다. 사리사욕을 버린 부처님의 마음,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과 타과의 구별없이 일체중생을 보살피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래야 민족의 위기도 피할 수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새해, 새 아침의 희망이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박성배 (美 뉴욕주립대 교수)

물질만능으로 훼손된 은근·끈기 회복을 英·日등 문화보호시민운동 '좋은 본보기' 고유문화상품 개발 '반만년 역사' 알려야

문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긍지와 생활 원동력에 뒷받침이 되게 한다. 둘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서적 문화의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아 이것이 세계로 알려져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뻗어 경제적 기반에 큰 몫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역사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겸한 국토의 보존이란 개념으로 향후

문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긍지와 생활 원동력에 뒷받침이 되게 한다. 둘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서적 문화의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아 이것이 세계로 알려져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뻗어 경제적 기반에 큰 몫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역사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겸한 국토의 보존이란 개념으로 향후

문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긍지와 생활 원동력에 뒷받침이 되게 한다. 둘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서적 문화의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아 이것이 세계로 알려져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뻗어 경제적 기반에 큰 몫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역사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겸한 국토의 보존이란 개념으로 향후

문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긍지와 생활 원동력에 뒷받침이 되게 한다. 둘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서적 문화의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아 이것이 세계로 알려져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뻗어 경제적 기반에 큰 몫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역사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겸한 국토의 보존이란 개념으로 향후

문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긍지와 생활 원동력에 뒷받침이 되게 한다. 둘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서적 문화의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아 이것이 세계로 알려져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뻗어 경제적 기반에 큰 몫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역사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겸한 국토의 보존이란 개념으로 향후

생활속의 불교 104

참회,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길

법요식 때에 외는 참회문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있는 사구제이다.

"지난 세상 지어놓은 모든 악업/ 하나같이 비릇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말·뜻으로 지은 것이라/ 나는 오늘 지성으로 참회합니다."

살아오면서 그간에 열가지 무거운 금계(禁戒)를 부지기수로 어겼을 터이니 낱날이 금일에 참회하겠다는 다짐이다.

참회란 뼈를 깎는 뉘우침이다. 자기 반성이다. 불보살계 용서를 비는 일쯤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부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벌인 용서하고 빌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분이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찌 평등한 법이요 대자대비의 법이겠는가.

보현행원품의 참회문은 그래서 '시작을 알 수 없는 나의 탐심 진심 치심이 신·구·의로 지은 악업이니 오늘 스스로 뉘우친다.'고 말한다.

죄업을 짓고 불보살계 용서를 빌고

다시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따위의 참회는 참회도 속죄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하나의 탐심·치심을 키우는 결과에 머물고 만다.

진정한 참회란 곧 자기혁명이어야 한다. 참회의 순간 순간에 자신의 탐심 진심 치심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육심으로 일컫진 안경을 벗어 던지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궁극에는 모든 분별을 벗어던지겠다는 서원이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이란 다만 또하나의 상념일 뿐이다.

내가 지은 죄업을 내가 씻어내지 않으면서 누굴보고 덮여달라 할 것인가.

나의 죄업을 낱날이 고하고 용서를 빌어보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고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내 마음속의 부처·빛깔도 소리도 모양도 없는 나의 법신불 주인공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길은 그것



밖에 없다. 내가 나에게 자수하는 그 길 밖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부처님께서 진좌에 가르쳐주신 길도 그것이다. 고로 불보살 전에 용서를 비는 식의 참회란 이미 길을 일러준 분에게 내 대신 길을 가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리석고 딱한 일인가. 자신 이외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대신해달라고 빌고 있다면 말이다.

참회는 때를 가리지 않는다. 지은 업을 한 뉘에 몰아서 참회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선구의로 업을 짓고 있으니 참회도 생활의 순간 순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로 참회는 곧 참심이다. 끊임없는 회향이다. 방학작이다. 일체는 참나찰나의 나뉠이자 쓰임일 뿐 본래로 공(空)함을 알아 분별을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다. 참회가 단지 뉘우침에 그친다면 어느 때 어떻게 거듭 날 수 있겠는가. 고로 참회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것. 자수하여 광명찾는 길이다. 나의 법신불 주

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아는 것' 때문에 막힌다. 아는 것이 길을 막고 아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행동은 비뚤어지고 마음은 응색해진다.

내 속에서 나온 그 아는 것이 나의 갈 길을 막고 나를 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매 순간 참회하며 살 것인가 아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참회는 평화로 이어지고 평화는 행복을 낳는다. 참회는 영원한 휴양처로 가는 승차권이다.

새해를 맞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분별의 굴레 속에서 하루 하루 탐심 진심 치심을 키우며 살아 가고 있는 지를.

협찬: 주인공